

갈보리 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1 교회표어: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행6:4)
- ①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 모든 가정에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 ② 이삭줍기 주일: 오늘은 이삭줍기주일입니다. 드러진 헌금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합니다
- ③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실에서 있습니다.
- ④ 월례회: 4 남선교회 1 여선교회 월례회가 각 여선교회 임원모임 후 있습니다.
- ⑤ 모임: 1부예배 후 각 여선교회 임원모임이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 ⑥ 작은 바자회: 4 여선교회에서 성전건축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다음 주일 1부 예배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품목: 수제 Key 고리, 팔죽, 호박죽 등. 교회 홈페이지 www.calvary.org.nz 참조)
- ⑦ 수료: 청년부 중심인 헬스 2기생들이 훈련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료자: 권준현, 김이삭, 박소망, 박형길, 이예슬, 진혜령, 심창진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⑧ 감사: 종이컵, 커피 믹스를 박재란(김상덕) 집사 가정에서 기증 하셨습니다.

갈보리교회 선교지

해외 선교지

-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사역)
-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국내 선교지

- ▷City Mission 섬김
- ▷밀알장애우 봉사

5월 교회일지

어린이 주일

(유아세례식):
5월 1일 (주일)

아버지 주일:
5월 8일 (주일)

이삭줍기주일:
5월 22(주일)



새로 등록하신 분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인도자
	장세환, 임선화	638-3533	21 A Ewington Avenue Mt Eden	스스로

5월 기도자 및 안내담당

	1부기도	2부기도	수요기도	예배 안내	새신자 안내	주차안내	주방봉사
1일	고성일	최장한	김인희	박병민/이기중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제연
8일	이동술	김성희	김재연	박병민/이기중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제연
15일	고성일	진혜령	정진택	박병민/이기중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제연
22일	박일영	김이삭	김지혜	박병민/이기중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제연
29일	김영길	김정민	김철홍	박병민/이기중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제연

갈보리 금주 기도 제목

1. 혈액암으로 투병중인 기성형제와 여러 성도들의 질병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김경수, 이수원)
2. 사명감으로 사역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학생들은 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정서 속에서 성장하도록
3. 세상보다는 신앙에 더 많은 관심을, 경건의 훈련에 열심하여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4. 오디오 성경번역에 힘쓰는 FCBH선교회를 통해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듣는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심창진
교육전도사	: 진혜령
시무장로	: 김영길, 이광희 정관영, 현석호
은퇴장로	: 김교섭, 박일영 정덕수, 최재학 유승재, 박재용
지휘	: 신경화
반주	: 송민영, 유지선

2011 교회표어: (사도행전 6:4)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찾아오시는 길
Newton Rd, City, Grafton Rd, Mt Eden, Nugent St, Southern Motorway, Newmarket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2011년 5월 22일

주보 13권 21호

www.calvary.org.nz

예배시간안내

주일1부예배 주일	PM1:00 본당 유아부	주일 PM1:00 유아실
주일2부예배 주일	PM3:00 본당 아동부	주일 PM1: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7:30 본당 중고등부	주일 PM1:00 별관
새벽기도	금요일 AM5:50 Chapel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Ph: 09 - 369-5077

갈보리 교회 목표

하나님 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갈보리 교회 비전

1.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2.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
3. 세상을 변화 시키는 교회

주일1부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반주자
전주		
예배로 부름	시편 48:1-2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찬송	35장 (50장)	다함께
*성서교독	21 (13). 시편 34편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273장 (331장)	다함께
대표기도		이광희장로
성경봉독	창세기 28:16-19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야곱, 하나님을 만나다 (2)	이태한목사
찬송	337장 (363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주기도문 송	다함께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기도순서안내 | 다음주 기도: 김영길 장로 6월 5일: 정관영 장로

지난주일통계 | 1부 109명 2부 15명 학생부 25명 아동부 16명 유아부 13명 총계178명

건축헌금
지난주: \$0.00
총계: \$591,979.97

주일2부예배

오후3시		
찬양	청년찬양단	다함께
기도		김이삭자매
성경봉독	민수기 27:1-7	인도자
설교	기업을 주소서	심창진목사
찬송	그 사랑 얼마나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축도		심창진목사

다음주 기도: 김정민집사

성서교독 21: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어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와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돌리 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맞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요예배

오후7시30분		
찬양	수요찬양단	다함께
기도		김지혜집사
성경봉독	계시록 22:1-5	다함께
설교	천국의 삶 (2)	이태한목사
찬송	235장 (222장)	다함께
합심기도		인도자
광고		인도자
주기도		다함께

수요예찬 기도: 최광암집사
다음 수요기도: 김철홍집사

갈보리 칼럼

신앙과 과학은 서로 다른 영역임에도 왜 대립해야 하는 것일까?

중세 시대에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가 종교재판에서 자신의 발견을 부인해야만 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그 이후에는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끊임 없는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살아있는 최고의 천재라는 불리우는 ‘스티븐 호킹’ 박사는 “천국이 있다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 속의 이야기”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과학이 종교를 이길 것”이라고 한 발언이 이슈가 되고 있다. 기독교 신앙과 과학이 서로 양립하기 힘든데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과 서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을 주장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과학은 과학적인 증명과 사실로 결론이 나와 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철학과 종교적인 결론을 내린다는데 문제가 있고, 종교는 신학과 신앙으로 출발하지만, 때때로 과학적인 결론을 내고 독선적인 태도를 보일 때도 있다. 즉, 과학만이 객관적인 진리이고 종교는 주관적이고 비 논리적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 종교를 공격하고 물질과 논리적인 사고만을 믿게 된다. 반대로,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언어와 문자로 적어 놓은 것을 성서적인 진리가 아닌 객관적인 증명없이 과학적 진리로 믿고 문자 하나 하나에까지 종교적인 권위를 갖게 한다면 과학과는 대립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스티븐 호킹 박사의 발언 속에는 그의 천체 물리에 대한 앎을 바탕으로 종교를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그가 기독교 신학과 철학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과 생각을 하고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발언에는 모순과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0~21)” 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눈에 볼 수 있는 우주 공간(하늘)과 천국을 동일시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뇌가 멈추면 그 이후엔 아무 것도 없으며, 뇌는 고장 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나 다름없고 고장난 컴퓨터를 위한 사후세계는 없다” 고 발언 했지만, 여기에 그가 생각치 못한 부분이 있다. 컴퓨터가 고장나더라도 버리지 않는게 있는데, 바로 저장된 자료들(데이터)이다. 그 데이터는 새 컴퓨터로 옮겨져서 더 빠른 하드웨어와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계속 사용되고 업데이트 된다. 즉, 우리의 육신은 고장난 컴퓨터처럼 폐기될 수 있지만, 삶 가운데 많은 좋은 데이터를 쌓아 나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곳,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과학과 신앙은 계속해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과학과 신앙은 다른 주제와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학은 우주와 만물이 “어떻게” 생성되었고 “어떻게” 운행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고, 신앙인인 우리는 궁극적인 근원에 대한 “왜” 라는 질문과 어떠한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과 함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최충일집사